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부흥회를 허락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신 노진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초청하고 참석하신 교우들께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 밤 9시 합심기도 기억해주시시오. 금요일 밤 8:30 - 10시 기도 다락방 열려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주보 기도제목).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시오.
- 오늘 친교 준비해 섬겨주시는 성창현, 김은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김현정 권사 (시 51:1-12)
- 친교: 황인선 사모
- 8월 안내: 하영미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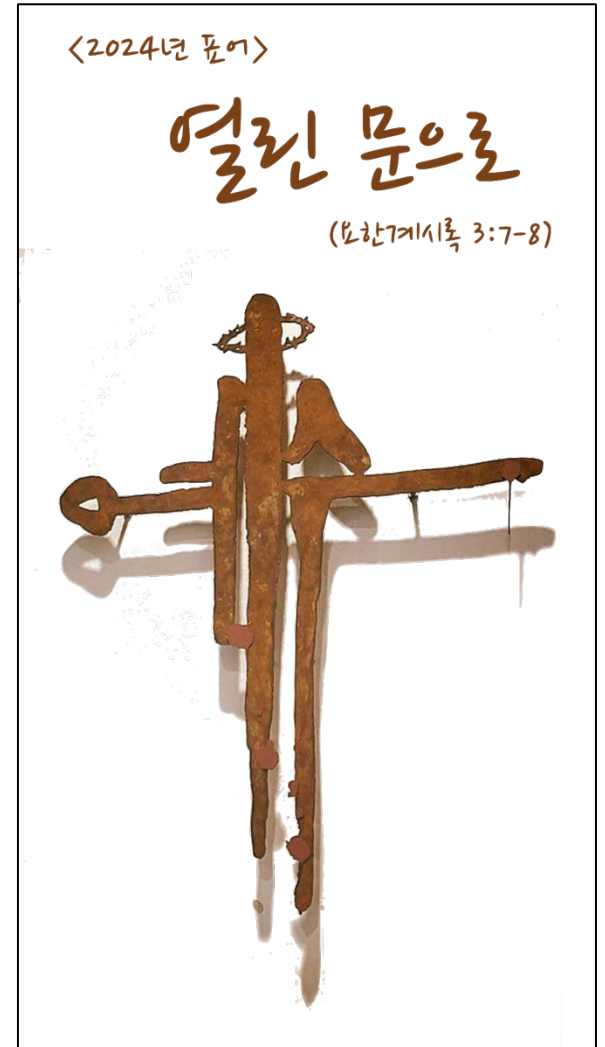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빛과 은혜를 받아 등불과 소금이 되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이삭,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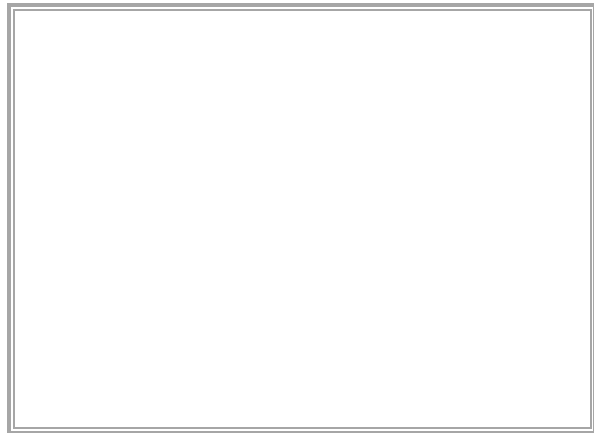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Esther Song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	Together
Prayer-----	Stephen Ahn
Word of God-----	Acts 22:19-22 ----- Chris Ahn
Sermon -----	“What Would Offend You?” - Pastor Edwin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31(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다함께
Hymn	497(274)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대표기도 -----	시편 145:10-18----- 김종한 장로
Prayer	
찬양대-----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엡 3:1-9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제자들: 바울 ----- 노진준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325(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함께
Hymn	
*축도 -----	노진준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일 말씀

형제, 일꾼, 중: 사랑 받는, 신실한, 주 안에서 함께 (골 4:7-18)

바울은 편지를 맺으며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모든 이름들이 바울과 하나님께 사연이 있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사랑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한 중.”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두기고는 골로새에 편지를 들고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때 자주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보낼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지만(잠 25:25),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맡기는 것은 자기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잠 26:6). 좋은 소식 전하는 충성된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보낼만한 신실한 사람들, 교회가 됩시다. 그런 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에만 아니라 심령에 은혜의 소금을 쳐서, 세상에 오신 복된 소식 주님을 증거합니다.

“형제” 오네시모도 편지와 함께 왔습니다. 종이었는데 “형제”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거둬나 아버지가 같으니 형제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보니 형제라고 해서 우정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사랑 받고” “신실”해야 합니다. 우정은 개발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사연을 통해 개발된 우정은, 태어나보니 형제보다 낫습니다. 거둬 난 우리의 신분과 신실하게 오래 사랑하는 우리의 우정의 결과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늘 위기의 순간 바울 곁을 지키며 지금도 함께 갇힌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신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선 어머니의 기도와 외삼촌의 권위와 바울의 엄중한 책망을 통해 신실히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을 약속할 수 있는 건 오직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신실하게 세우시는 신실한 주님의 은혜에 사용받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수고합니다. 같은 목적 같은 기도제목 같은 수고입니다. 주님과 함께 명예를 진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위한 우리의 중보와 수고와 섬김이 주님과 함께 진 명예라면 쉽고 가벼울 뿐 아니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중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사연 되기를 소망합니다.